

강진서 '세계도자기엑스포 포럼' 열린다

전남도·강진·목포·영암·무안·광주전남연구원 공동 주최 엑스포 성공유치 논의...도자산업 관광 상품화 방안 발표

세계도자기 엑스포 유치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강진서 열린다. 강진군은 5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전남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전남도, 강진군,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광주전남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포럼에서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김철우 교수가 '전남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또 동신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김희승 교수가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를 통한 도자산업 관광 상품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어 조창완(광주전남연구원 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윤영근(전남도립대학교 도예차문학과 교수), 권혁주(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이승현(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대학원 외래교수), 오순환(용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오성수(광주매일신문 총괄본부장)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포럼에 함께한 4개 시군은 내년 8월 전남도에 엑스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전남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강진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인근 목포시와 무안군, 영암군과 함께 '전남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전남도 주관 아래 추진할 것을 김영록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강진, 목포, 무안, 영암 등 전남 서부권 4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

운데, 세계도자기 엑스포 공동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 회동을 갖기도 했다. '전남도 세계도자기 엑스포'는 강진군과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일대에 흩어져 있는 오랜 전통의 도자 산업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전라남도에서 주관해 개최하는 안으로, 이 일대는 경기도 광주나 이천보다 도자기 관련 콘텐츠가 풍성해, 효과적인 마케팅이 더해진다면 승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계도자기 엑스포 제안'은 타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전남 전체의 발전 전략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남도와 4개 시군의 협력을 통한 전라남도 도자기 엑스포 개최는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국제 축제로의 도약을 통해 파이 자체를 더 키워가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으로 ‘창평국밥’ 드시러 오세요”

‘창평국밥거리’ 새단장...음식특화거리 명소 기대

담양군이 100년 역사를 간직한 '창평국밥거리' 새단장을 마쳤다. (사진)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창평국밥거리가 전남도가 추진하는남도 음식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했다. 군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거리 상징조형물 ▲주차장 내 소공원 ▲디자인 버스 승강장 ▲포토존 수목 벤치 ▲디자인 간판 ▲화장실 외벽 등을 조성·정비했다.

창평국밥 거리는 1919년 창평 전통시장 개설과 함께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슬로시티와 함께 담양군 창평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통해남도 문화관광도시 담양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며 "지속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볼거리, 재밌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함평군 보건소 직원들이 새해를 맞아 마음가짐을 다지며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군민건강 100세 시대' 실현 총력

인공관절·백내장 등 수술비 지원 확대...맞춤형 보건행정 추진

함평군 보건소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군민 건강 100세 시대'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함평군은 군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 맞춤형 보건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인공관절·백내장·녹내장 수술비 지원대상을 소득요건(중위소득 150% 이상)을 없애고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치매감별 검사비(8만원),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원) 지원도 60세 이상 주민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건강증진형 월아보건의소'를 적극 활용, 나산면과 해보면을 아우르는 권역형 건강증진형 사업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또한 노인 2천명 결핵전수검진, 미취약아동 니코틴 모발검사 등의 각종 신규시책 사업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지난 한 해 사업성과가 좋았던 ▲한의약·재활 통합관리사업 ▲출산장려 임신부 영유아 관리 ▲치매 안심마을 운영 ▲음식문화개선 등의 보건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정명희 함평군보건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면서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 생활 영위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평생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주민건강 100세 실현'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건강증진생활동경연대회 ▲세계 금연의 날 유공 ▲장애인 건강보전관리사업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유공 ▲식품·공중위생·음식문화개선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PHIS부분 등 기관표창 9개를 수상한 바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화순군, 2년 연속 우수

화순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주민지원사업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영산강·섬진강 유역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화순군은 주민지원사업 부문에서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관리 실행 및 성과 달성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 사업이 2023년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모 신청 이래 국비 사업비를 최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복지와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김한중(왼쪽 두번째) 장성군수가 지난 2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새해 군정 구호를 제시했다. <장성군 제공>

'가고 싶은 장서, 행복한 만남'

장성군 새해 군정 구호 발표...“미래 핵심 먹거리 육성 최선”

장성군이 새해 군정 구호로 '가고 싶은 장서, 행복한 만남'을 발표했다. 김한중 군수는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올해 군민 행복시대를 구체화하겠다"며 "미래 핵심 먹거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군정 구호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성군은 새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안의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국립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은 5월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배후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은 기본구상·타당성 조사용역에 돌입했다. 덕성행복마을 조성, 장성사랑상품권 증액 발행, 장성 5대 맛거리 조성, 문화관광재단 설립 등도 추진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계묘년 새해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군민이 행복한 장성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전국 제일의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